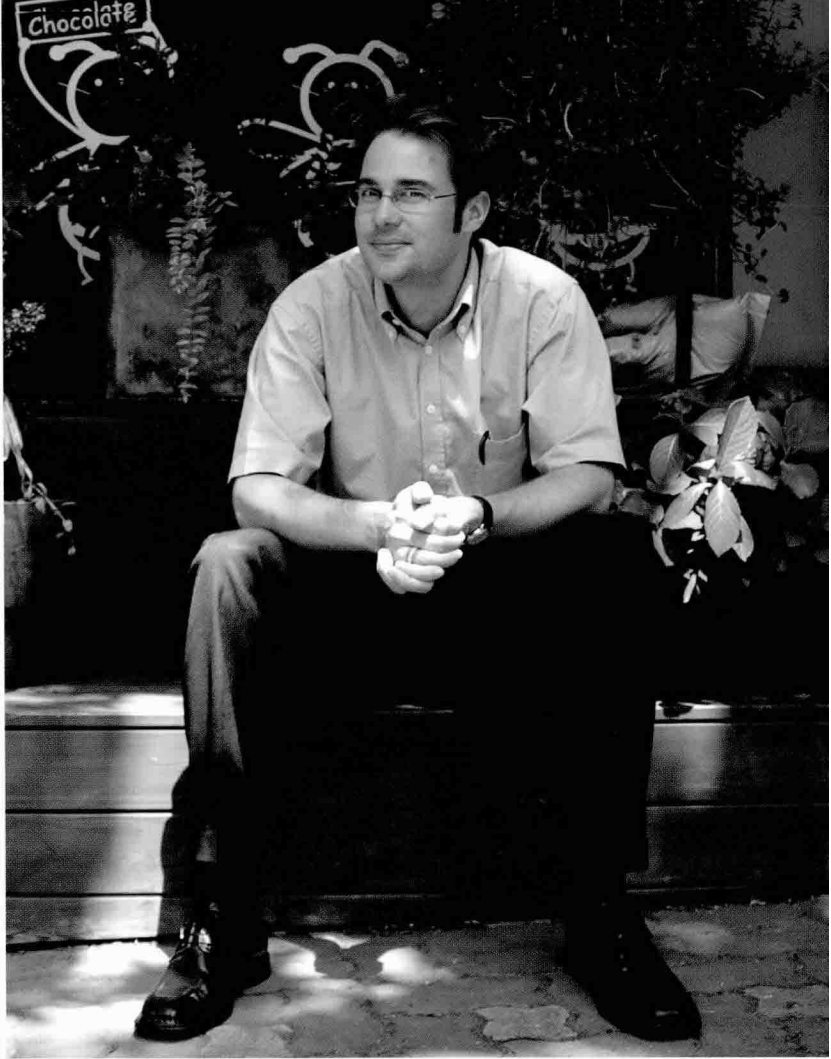


인쇄사는 제지, 전기, 잉크, 알콜, 물, 파우더 등 아주 많은 자원들을 소비한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손가락 사이로 새는 자원들이 많다. 조금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루, 일년, 10년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된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하이텔베르그에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새는 돈을 잡는 것이 바로 인쇄사 사장들 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INTERVIEW

해외분야

군나 보그트
하이텔베르그 마케팅 상무이사

전체 인쇄가격보다는 인쇄된 종이 한장당 원가 절감이 필요

군나 보그트씨는 올해 1월부터 한국하이텔베르그에서 프로젝트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 4년동안은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했으며, 그 전에는 독일에서 매엽인쇄기를 개발했다.

하이텔베르그의 환경친화적인 노력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환경은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인쇄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다양한 환경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이텔베르그에는 환경관련 전문 부서가 따로 있어,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예중 하나가 하이텔베르그의 암스테텐 주물 공장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전체 인쇄기 제조 업체에서 처음으로 ISO14001 환경인증을 받았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암스테텐 주물 공장은 인쇄기의 철근 구조를 만드는 공장으로, 받기 힘든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으로 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ISO14001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하이텔베르그밖에 없으며, 하이텔베르그의 모든 생산 공장들은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탄소배출권인데, 하이텔베르그에서는 최초로 탄소중립인쇄기를 만들었다.

손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인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이이다. 바로 이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인쇄에서는 본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준비단계를 거친다. 보통 편을 맞추고 잉크농도를 맞추는 시험인쇄를 거친다. 요즘 인쇄기들은 보통 시간당 1만8천장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돌리는데도 인쇄기마다 기장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00~500장 정도를 사용한다. 이는 인쇄값을 미리 설정하지 않아 인쇄기가 돌아가는 동안 잉크와 종이가 버려진다. 사전설정(프리트)의 경우 프리프레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인쇄전에 미리 잉크값을

설정하면 조금만 만져도 본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이텔에서 손지절감을 위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군나 보그트 이사는 "프리넥 프리프레스 인터페이스가 그중 가장 중요한 프리넥 워크플로 제품이다. 인쇄전에 기계를 미리 설정하는 제품인데 특히 잉크키는 프리프레스 부서에서 넘어오는 작업 데이터를 통해 설정한다. 그래서 작업당 최소 4분의 시간과 100장의 용지가 절약된다. 스피드마스터 XL 105-6+L을 사용하는 인쇄사의 경우(5일 작업, 3교대) 연간 17만5000장의 종이(735그루의 나무와 50톤의 CO2)를 절약할 수 있다.

수성 인라인코팅

우리나라는 인쇄기 유니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유럽의 경우 코팅기를 인쇄기 유니트 맨 끝에 붙여 사용하는 인라인코팅을 대부분 사용한다. 대부분이 패키지제품에 사용되지만 카탈로그나 사보 등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물론 코팅은 수성코팅으로 친환경적이다. 수성코팅을 하면 표면에 광택이 있을 뿐 아니라, 코팅을 하게 되면 건조되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뒷면을 인쇄하거나 후가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라인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시키기 위한 바람이 필요한데 이 바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에어스타'가 있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타사의 에어블러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30%전후인데 비해 하이텔 제품은 70%에 육박한다. 즉 사용 전기의 30%만이 에어로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열로 방출되는데, 하이텔의 경우 70%가 에어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2007년 8월부터 공급되는 하이텔의 모든 에어 공급장치는 에어스타로 공급된다.

자원절감과 함께 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

인쇄를 할 때 물의 비율은 줄고 알콜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쇄는 쉬워진다. 그래서 보통 7~18%정도의 알콜을 사용한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알콜 사용량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비율을 1~4%로 낮추어야 한다. 즉 3%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하이텔베르그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알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 그래서 알콜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 알콜을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군나 보그트 이사는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비싼 가격때문에라도 저알콜 인쇄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과 한국의 생각이 차이

군나 보그트 이사는 "유럽의 경우 인쇄된 종이한장당의 원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완성된 인쇄물의 장당 가격을 얼마나 더 싸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비싼 시스템이라 초기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유럽, 호주, 일본 등은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번 투자하고 그 가치를 10년동안 뽑아내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비싼 투자비용이지만 연간 얼마나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가장 염두해 둔다.

하지만 한국이나 아시아지역의 경우 초기투자를 얼마나 적게 들이는가에 대해 중점을 둔다. 그래서 싸인 인쇄기를 산다. 싸인 인쇄기를 사면 운용비용이 많이 든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손지가 많이 발생한다. 완성된 인쇄물의 장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싸인 제품은 도입할 때는 당장은 저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쇄사를 1년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고 수십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더 싸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연히 사장들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에너지, 종이 등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을 돕는 것은 서로서에게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시작하고 있다. 파주북시티의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인드셋이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큰 인쇄업체들부터 이런 친환경 사업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